화순여성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수료식 개최

4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4개월간 운영

뉴미디어온라인마케팅전문가 양성과정 16명

화순군은 지난 7일 화순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화순여성새일센터)에서 '뉴미디어온라인마케팅전문가 양성과정' 수료식을 가졌다.

지난 4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4개월간 운영된 '뉴미디어온라인마케팅전문가 양성과정'은 16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운영되었으며, 16명 전부가 수료하였다.

수료식은 교육훈련 영상 상영, 수료증 수여, 단체 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함께 수업을 들은 훈련생들의 모습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담은 최00 훈련생의 영상이 훈련생 대표 영상으로 선정되어 상영되었다.

훈련생 전원이 교육과정을 수료한 만큼 수료식은 웃음이 가득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교육과정을 진행한 최00 강사는 "강사로서 첫발을 내딛던 때의 열정을 떠올리게 할 만큼 수강생들의 열정이 가득했다.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모두가 과정에 성실하게 임해주어 그 어떤 때보다도 행복하게 강의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뒤이어 소감을 발표한 최00 수료생은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여기서 멈추지 않고 꾸준히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 목표한 바를 이루겠다."라며 앞으로의 의지를 밝혔다.

뉴미디어온라인마케팅전문가 양성과정은 포토샵, 영상편집 과정뿐 아니라 현시대에 발맞춘 SNS마케팅 과정까지 함께 진행하여 훈련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16명 중 14명이 GTQ그래픽기술자격 2급 시험에 합격하는 좋은 결과를 거두었다.

수료생들은 종강 후에도 화순여성새일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취업동아리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취업 정보 공유, 직장 생활에 필요한 팀워크를 배울 수 있다.

화순여성새일센터에서는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직업능력 개발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여성 취·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취·창업 알선 등 사후관리도 진행하고 있다.

문의는 화순여성새일센터(☎ 061-379-3551, 379-3975~9)로 하면 된다.

화순=박순철 기자

장성군, 상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우수' 선정

특별교부세 1억 원 확보

장성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상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상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상반기 물가 안정관리 추진 사항을 7개 분야 13개 지표 기준으로 평가한다.

7개 평가분야는 △지방공공요금 안정 관리 △착한가격업소 지원 △개인서비스요금 물가상승률 △지방물가 안정 추진 실적 △개인서비스요금 안정 추진 실적 △정책 협업 실적 △취약계층대상 지원 실적이다. 13개 지표에는 물가안정 시책과 지방공공요금 감면 실적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업량을 중점적으로 보는 정량평가가 70%, 사업 내용 및 가치 위주의 정성평가가 30%를 차지한다.

올해 장성군은 상하수도 요금과 종량제 쓰레기봉투 가격 등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해 공공요금 안정화를 도모했다. 특히, 취약주민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등 각종 효율적인 특수시책을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성=김수권 기자

곡성군, 생활개선회 읍·면 순회교육 추진

17일까지 총 11회 걸쳐 천연염색 및 농업인 안전 예방 교육 실시

곡성군이 지난 7일 목사동면을 시작으로 오는 17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생활개선회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생활개선회 읍·면 순회교육은 농촌 여성의 사회, 경제적 지위 및 농촌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는 천연염색에 대한 이론 및 실습 교육과 함께 회원들의 안전을 위한 온열질환 예방. 진드기 매개감염병,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 교육 등이 진행된다.

이번 천연염색 교육은 오곡면 생활개선회원들이 직접 나서며 재능기부 형태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회원들이 지역사회에 생활개선회의 위상을 높이고, 더 나은 농촌 생활의 질을 구현하고자 한다.

한국생활개선곡성군연합회 관계자는 "지난달에 내린 폭우에 이어 연일 무더위가 지속됨에 따라 너나 할 것 없이 심신이 지쳐있는 상황이다. 짧은 시간이지만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 나아가 회원들의 재능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으로 이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생활개선회가 농촌 여성리더로서 선도적 역할과 역동적인 활동을 펼쳐 회원의 능력을 발휘하고 결속력 있는 단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생활개선곡성군연합회는 과제교육 및 선도자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며 회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농촌 경제 활성화와 농촌 생활개선을 위해 하천정화활동, 폐유활용 재생비누 만들기, 희망밥상나누기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곡성=양해영 기자

"함께 읽어요" 나주시, 올해의 책 4권 선정

어린이·청소년·문학·비문학 장르 추천 후 시민 선호도 조사

나주시가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의 책' 4권을 선정했다.

나주시는 2023년 올해의 책에 '거짓말의 색깔', '페퍼민트', '아버지의 해방일지', '지구는 괜찮아, 우리가 문제지'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의 책 선정은 지난 4월 시민과 각급 학교, 관련 전문가, 기관 등으로부터 어린이·청소년·문학·비문학 장르 도서 추천을 통해 이뤄졌다.

총 79권의 도서가 추천된 가운데 올해의 책 선정위원회는 분야별 후보 도서 3권을 압축했으며 온·오프라인 시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총 4권의 올해의 책을 최종 선정했다.

어린이 분야 '거짓말의 색깔'(저자 김화요)은 거짓말 속에 숨겨진 마음을 보는 아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아이,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는 아이의 이야기를 다룬다.

청소년 분야 '페퍼민트'(저자 백온유)는 보호를 받아야 할 나이에 엄마를 간병하는 주인공 '시안'을 통해 가족과 돌봄의 무게, 나아가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던진다.

문학 분야 올해 책으로 선정된 '아버지의 해방일지'(저자 정지아)는 '전직 빨치산' 아버지의 죽음 이후 3일간의 시간만을 현재적 배경으로 다룬다.

비문학 작품인 '지구는 괜찮아, 우리가 문제지'(저자 곽재식)는 기후 위기는 먼 이야기가 아닌 우리에게 닥친 현실임을 다양한 주제로 재미있고 알차게 알려준다.

나주시가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한 올해의 책으로 '거짓말의 색깔', '페퍼민트', '아버지의 해방일지', '지구는 괜찮아, 우리가 문제지'(사진)를 선정했다.

나주=송준표 기자

담양군,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성료…8월2일~4일

담양군은 지난 8월 2일부터 4일까지 (사)지역미래연구원 오미덕 주민참여예산센터장을 초빙해 권역별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했다.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를 통해 참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방식으로 진행했으며, 교육에서는 담양군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소개 및 다른 지역의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앞서 담양군은 '군민참여 활성화로 포용적 공감행정 구현'을 민선 8기 군수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었다.

이를 위해 2023년 예산에 당초 계획했던 주민참여예산을 13억에서 18억까지 확대했으며 주민이 행정의 주체가 되는 상향식 예산편성을 실현하고자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4년 예산에 반영될 군 주민참여예산은 총 25억으로, 군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선도할 정책사업 10억과 주민생활편익사업 등의 지역참여사업 15억으로 운영된다.

주민참여예산은 오는 11일까지 담양군청 기획예산실,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해 9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다. 담양=박종영 기자